고은혜 : 벌써 수요일인데 이번 주 목표는 어때? 잘 되고 있어?

주인공 : 솔직히 말하면….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

고은혜 : 후배는 학생회에 막 들어왔잖아. 적응하는 데도 바빴을 테니까 이해해.

주인공 : 그러면 좀 늦어도 괜찮은가요?

고은혜 : 아니. 안 돼.

주인공 : 아, 네….

고은혜 : 후후. 장난이야. 사실 늦어도 돼. 다만 뭔가 찜찜해서 말이야.

주인공 : 뭐가요?

고은혜 : 딱 말로 하긴 힘들지만….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.

고은혜 : 그러니까 후배가 달성해주면 좋겠어. 기대할게.